



기독교 박해지수 World Watch List 2025

기독교인의 종교적 자유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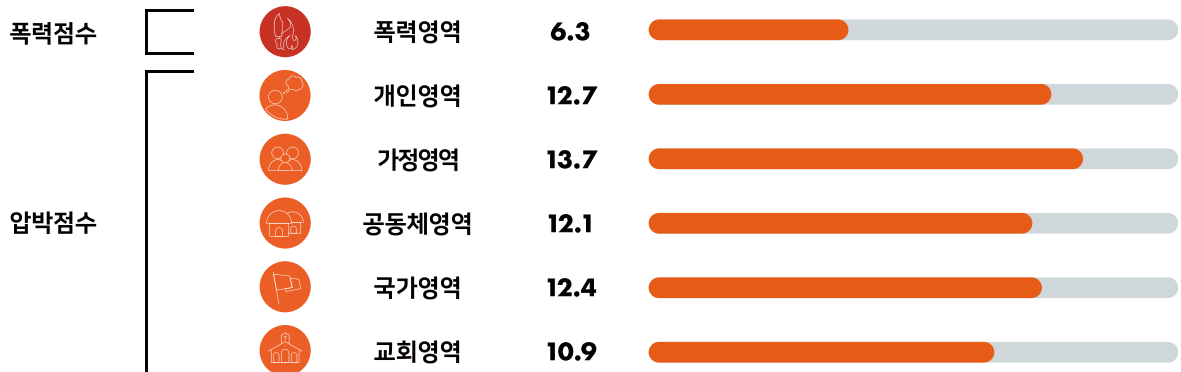
이집트 (EGYPT)

기독교 박해지수
40위



©Alamy

폭력과 압박의 정도



* 6개 영역 박해 지수는 영역 별로 16.7점을 만점으로 책정한다. 영역 별 총합은 100점이다 (6x16.7=100)

중요한 발견

종교의 자유 침해는 주로 지역사회 차원에서 발생하며, 예를 들어 기독교 여성들이 거리에서 괴롭힘을 당하거나 신성모독 의혹 이후 무슬림 폭도들이 기독교인들의 이주를 강요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사건은 주로 상이집트의 농촌 지역과 살라피스트(Salafist) 운동이 활발한 일부 도시 지역에서 발생한다. 대통령은 이집트의 역사적인 기독교 공동체에 대해 긍정적으로 발언하지만, 미흡한 법 집행으로 인해 이들은 공격에 취약하며, 때로는 치안 당국이 이에 공모하거나 방조적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대통령이 “모든 신도 시에 교회를 건축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교회 건축은 제한되고 있다.

이집트 (EGYPT)

국가 정보

지도자 : 압델 파타하 엘시시 대통령

인구 : 114,484,000명

기독교인 수 : 10,084,000명¹

주요종교 : 이슬람

정부형태 : 대통령제 공화국



국가 상황

종교 상황	신자 수 (명)	비율 (%)
기독교인	10,084,000	8.8
무슬림	103,460,000	90.4
불가지론자	812,000	0.7
무신론자	120,000	0.1

출처²

이집트는 형식적으로는 민주주의 국가이지만 의회의 권한은 항상 미약했고 사실상 대통령이 단독으로 통치한다. 사법부의 독립성은 제한적이며, 정부가 법원 판결을 아예 무시하는 일도 드물지 않다. 2014년 엘시시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정치 상황은 안정되었지만 인권은 위기를 겪고 있다. 엘시시는 반대파 단체를 강경하게 탄압했고, 수천 명의 비판자들이 체포·고문·실종되었으며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다. 소셜 미디어는 감시되고, 정부나 이슬람에 대한 비판은 용납되지 않는다.

이집트는 문화적으로 보수적이며 수니파 이슬람의 영향력 있는 중심지가 되려 한다. 특히 많은 기독교인이

거주하는 농촌 및 빈곤 지역에서는 급진 성향의 이맘들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전반적으로 기독교인과 무슬림 사이의 분열이 크다. 기독교인에 대한 고용 차별은 특히 민감한 정부 정책과 관련하여 여전히 뚜렷하다. 기독교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은 보이콧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기독교인들은 신성모독 의혹이나 새 교회 개설 소문만으로도 폭도들의 공격에 여전히 취약하다. 보통 지방 당국은 이른바 '화해 세션'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려 하지만, 이는 종종 무슬림 가해자들이 처벌 없이 풀려나는 결과로 이어져 기독교인에 대한 폭력에 불처벌 문화를 고착화한다.

세계 기독교 데이터베이스(World Christian Database)에 따르면 이집트인의 90%는 무슬림이며 사실상 전원이 수니파다. 기독교인은 상이집트와 대도시에서 특히 집중되어 있다. 기독교인의 90% 이상은 콥트 정교회 신자다.

중동 컨선(Middle East Concern)에 따르면: "이집트의 2014년 헌법은 이슬람을 국교로, 이슬람법의 원칙을 입법의 주된 원천으로 규정한다. 또한 그리스도인과 유대인은 자신들의 규범에 따라 신분관계와 종교

¹ 자료 출처: Zurlo G. A. 및 Johnson T. M. eds., World Christian Database, Leiden/Boston: Brill, 2024년 5월 열람

² 자료 출처: Zurlo G. A. 및 Johnson T. M. eds., World Christian Database, Leiden/Boston: Brill, 2024년 5월 열람

사무를 관장할 수 있도록 한다. 헌법은 종교를 포함한 차별 금지의 원칙을 확인하고, 종교의 자유가 절대적이라고 명시하며, 규정에 따른 종교적 실천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이 권리는 아브라함 계통 종교(즉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 신자에게 한정된다. 성문화된 법률에서 종교 개종이 금지되어 있지는 않지만, 실무상 이슬람에서 다른 종교로의 개종은 허용되지 않는다.”

지역 별로 상황이 어떻게 다른가?

상이집트, 즉 나라의 남부 지역은 보다 보수적인 이슬람을 따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북부보다 급진적이다. 대부분의 사건과 군중 폭력은 이 지역에서 발생하며, 미니아 주가 인구 대비 기독교인 대상 공격 건수가 가장 높다. 공격은 특히 나일 삼각주의 마을과 도시에서 급진적 무슬림들에 의해 자행된다. 무슬림형제단과 같은 급진 이슬람주의 단체들은 전국적 지지를 받는다. 폭력 성향의 이슬람 무장세력은 공개적으로는 시나이 반도 북동부 지역에서만 활동했다. 2023년에 엘시시 대통령은 시나이 지역에서 테러가 소탕되었다고 주장했다(Ahram Online, 2023년 3월 2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격은 이어졌고, 특히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발발 이후 해당 지역은 여전히 불안정하다.

누가 영향을 받는가?

해외 기독교인 공동체

이 범주는 WWL 점수화와 분석에 포함되지 않는다.

역사적 기독교 공동체

이집트 기독교인의 90%는 콥트 정교회에 속한다. 또한 정착된 개신교와 가톨릭 교단도 존재한다. 보다 포용적인 국가 서사에도 불구하고, 콥트 기독교인은 교육과 교회 생활의 핵심 측면을 저해하는 정부 입법에서 차별을 겪는다. 일반적으로, 콥트 기독교인은 역사적 존재와 수백만 명에 이르는 상당한 규모 때문에 국가와 무슬림 다수로부터 용인되어 왔다.

기독교 개종자들

규모는 작지만 증가하는 기독교 개종자들이 있으며, 이들은 대부분 가족 구성원에 의해 심각한 침해를 겪

는다. 친족들은 이슬람 신앙을 버렸다는 이유로 개종자를 체벌하며, 이는 구타나 가솔 강요의 형태를 띠는 경우가 많다. 아울러 이들은 이집트 정보기관의 엄격한 감시를 받으며, 정보기관은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들을 정기적으로 구금하고 학대하기도 한다.

비전통적 기독교 공동체

국내에는 여러 복음주의 및 오순절 계열 공동체가 있으며, 일부는 무슬림 배경에서 2세대 또는 3세대에 이르는 개종자들로 구성된다. 다른 일부는 정교회 배경에서 나왔다. 이들은 이슬람 사회와 콥트 정교회 양측으로부터 압력을 받는다.



박해와 차별의 주요 원인

이슬람적 억압

기독교인들은 국가와의 관계 전반에서 2등 시민처럼 대우받고 차별받는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다. 국가는 기독교인의 기본권을 존중하고 집행하는 데 소극적이다. 최근 과거에는 무장 이슬람주의 단체가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폭력 공격이 여러 차례 있었다. 다만 2018년 이후로는 그러한 대규모 공격은 발생하지 않았으나, 최근 몇 년 사이에도 지하디스트들의 기독교인 살해와 공격은 이어졌다.

독재적 편집증

이집트는 권위주의 통치의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다. 현재 이집트는 전직 군 총사령관인 압둘 파타흐 엘시시가 이끄는 민간 정부에 의해 통치되고 있다. 이 정부는 막대한 경제·정치·사회·안보상의 도전 과제들 속에서 기본적인 인권과 민주적 다원주의의 우선순위를 낮게 두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독교인의 종교의 자유는 온전히 보장되지 않는다.

기독교 교단 보호주의

특히 상이집트와 델타 지역에서 콥트 정교회는 다른 교단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한다. 정교회 성직자들은 교인들에게, 특히 복음주의 교단과 접촉하지 말 것을 경고해 왔다. 정교회 외 교회를 예배차 방문하거나 복음주의 목사의 가정 방문을 허용한 뒤, 정교회의 재정·사회적 서비스에 의존하던 가정이 그 지원에서 배제된 사례도 있었다.



남성과 여성이 받는 영향은 어떻게 다른가?

여성

이집트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젊은 기독교 여성들은 급진적 이슬람 가르침의 영향을 받은 남성들에 의해 유인과 성희롱의 표적이 될 수 있다.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실종되는 여성들이 많이 보고되는데, 강한 명예·수치 문화와 무슬림 다수와 기독교 소수 간의 권력 불균형이 존재하는 환경에서 무슬림 남성과의 관계가 개입된 사례도 있다. 경찰의 대응은 종종 공모적이거나 무관심하며, 많은 여성들이 여전히 실종 상태로 남아 있다. 기독교 소녀들, 대개 미성년이거나 취약한 가정 출신인 경우가 많은데, 이들은 결혼으로 유인되기도 한다.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여성은 가족의 '명예'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가정에 감금되거나 신체적 폭행을 당하거나 심지어 살해되기도 한다. 기혼자의 경우 이혼이 쉽게 이루어져 자녀 양육권을 잃을 수 있다.

여성이 전형적으로 겪는 박해형태:

- 납치
- 자녀 양육권 박탈
- 강제 종교적 복장 규정
- 강제 결혼
- 가족에 의한 구금 (가택연금)
- 표적 유인
- 폭력 - 살해 / 체적 / 심리적 / 성적 / 언어적

남성

고위 군이나 정부 직위에 있는 기독교인은 극히 적다. 특히 농촌 지역의 젊은 남성들은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우며, 신앙 때문에 불리한 위치에 놓인다. 이러한 역학관계의 압박으로 일부 가정에서 가정폭력과 이혼이 증가했다는 보고가 있다. 한편, 일부 세력은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을 이용해 젊은 남성들에게 금전적 유인을 제시하며 이슬람으로의 개종을 압박한다. 교회 지도자들(대부분 남성)은 기독교인으로 식별되기 쉬워 살해를 포함한 권리 침해에 특히 취약하다.

남성이 전형적으로 겪는 박해형태:

- 사업·직장·노동 접근 제한을 통한 경제적 괴롭힘
- 정부에 의한 구금
- 폭력 - 살해 / 심리적

월드와치리스트 5년 동향

월드와치리스트 연도	오픈도어 월드와치리스트 순위	100점 만점에서 반올림한 박해점수
2025	40	68
2024	38	68
2023	35	68
2022	20	71
2021	16	75

WWL 2025에서 종합 점수는 68점으로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폭력 점수는 7.8점에서 6.3점으로 하락했지만, 평균 압력 점수가 12.1점에서 12.4점으로 소폭 상승하여 이를 상쇄했다. 평균 압력 상승은 악화된 경제 상황과 이를 통제하려는 정부 압력의 증가가 결합된 데 주로 기인하며, 이는 무슬림과 기독교인 사이에 이미 존재하던 권력 역학을 더욱 악화시켰다. 폭력 점수의 하락은 국가의 평균적 폭력 패턴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며, 이는 이집트의 기독교인들이 매우 높은 수준의 폭력에 직면해 있음을 의미한다. 최소 2명의 기독교인이 살해되었고 최소 46명이 공격을 받는 등 사건이 발생했다. 또한 무슬림 배경의 기독교 개종자들에 대한 정부 압력도 추가로 증가했으며, 다수가 이집트 보안 당국에 의해 체포되고 신체적 학대를 당했다.

보고 기간 동안의 폭력 사례들

- **2023년 12월:** 상이집트 미니야 주 알아지브에서 콥트 기독교인 소유의 주택 여러 채가 마을 군중에 의해 방화되었다. 이 공격은 기독교 주민들이 교회 건축 허가를 받고 기초 공사를 시작한 뒤 발생했다(Christian Solidarity Worldwide, 2024년 12월 20일).
- **2024년 1월:** 2024년 1월 6일(콥트 정교회 성탄 전야), 미니야 주 아부 카르카스의 미샤앗 자아파라나에 있는 임시 교회 건물이 방화되었다(Christian Solidarity Worldwide, 2024년 1월 11일). 5년 전인 2019년 1월 초에도 군중 폭력과 현지 무슬림 주민들의 요구로, 해당 건물에서의 모든 교회 활동을 중단시키기 위해 경찰이 안전상의 이유를 들어 건물을 폐쇄한 바 있다.
- **2024년 4월:** 2024년 4월 13일 카이로 기자의 임바바 지구에서, 두 자녀의 아버지인 34세 왈리드 맘두가 이웃과 그의 사촌들에게 아내와 자녀들 앞에서 흉기에 찔려 사망했다. 왈리드는 가해자가 자신의 가게 앞에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에 항의했다. 가해자는 이슬람 극단주의자로 알려져 있으며, 이전에도 해당 지역의 기독교인들과 문제를 일으킨 전력이 있다(Copts United, 2024년 4월 16일).

월드와치리스트 연도	살해당한 기독교인	교회나 기독교 건물 공격 혹은 폐쇄 건수	신체적 혹은 정신적으로 학대당한 기독교인	피해 또는 몰수된 기독교인 사유재산 건수
2025	2	2	46	51
2024	3	3	44	23

이 표에는 보고 기간 동안 신앙 기반 폭력의 몇 가지 범주만 포함되어 있으며, 전체 결과는 해당 국가의 WWL 박해 다이내믹스 보고서의 폭력 섹션을 참조하라. 많은 사건이 보고되지 않기 때문에 숫자는 최소한의 수치로 이해되어야 한다. 정확하게 세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상징적인 정수(10, 100 또는 1000)가 표시되며, 실제로는 훨씬 더 높을 수 있다. 동일한 원칙이 상징적인 숫자인 10,000, 100,000* 및 1,000,000*에도 적용된다.

개인 영역

2008년 카이로 행정법원의 핵심 판결은 종교 실천의 자유가 일정한 제한을 받으며, 이슬람에서 다른 신앙으로의 개종은 이슬람 원칙을 위반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기독교인들은 소셜 미디어에서 이슬람을 모독했다는 의혹 이후 체포되거나 군중의 공격을 받기도 했다. 신성모독 혐의는 쉽게 제기될 수 있어,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잘 알지 못하거나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과 신앙을 논하는 일을 삼간다. 개종자에 대한 사회적 적대감은 매우 높으며, 개종 소문만으로도 특히 농촌 지역에서 군중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개종은 가족의 수치로 여겨져, 가족은 흔히 개종자를 내쫓거나 철회를 강요한다. 많은 이들이 신앙을 비밀로 유지한다. 상이집트의 기독교인들은 괴롭힘이 두려워 자동차 내 십자가 같은 눈에 띄는 상징 사용을 피한다. 거의 모든 콥트 기독교인들은 교회 출입 확인을 위해 팔에 십자가 문신을 새기지만, 이는 동시에 이들을 쉽게 식별 가능한 대상으로 만들어 차별에 취약하게 한다.

가족 영역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들은 신분증에 종교를 변경할 수 없다. 자녀의 등록 종교는 자동으로 아버지의 종교가 적용되므로, 개종자의 자녀는 무슬림으로 간주된다. 샤리아에 따르면 기독교 남성은 무슬림 여성과 결혼할 수 없다. 가족은 개종자에게 이혼을 압박하는 경우가 많다. 설령 이혼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개종자는 샤리아에 따라 상속권과 후견권을 상실한다. 교육 체계에서 이슬람이 지배적이다. 대부분의 콥트 기독교 아동은 학교에서 기독교 종교 수업을 듣지만, 여전히 교육과정의 일부로 이슬람 문학과 꾸란을 공부해야 한다. 때로는 기독교 종교 수업이 제공되지 않아, 일부 기독교 학생들이 이슬람 종교 수업을 따라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사립 기독교 학교에서는 피할 수 있으나, 비용 문제로 모든 가정에 가능한 선택은 아니다.

공동체 영역

고용 차별이 광범위하다. 기독교인은 정보기관에 채용되지 않으며, 군의 고위 보직에 복무할 수 없고, 정부의 고위직에서도 대표성이 낮다. 인구의 약 9%가 기독교 인임에도 지난 10년간 국가대표 축구팀에는 단 한 명



의 기독교 선수도 없었다. 이러한 차별로 인해 기독교인들은 국가나 민간 고용주에 의존할 수 없어 높은 수준의 기업가 활동을 보이게 되었다.

빈곤하고 농촌인 지역, 특히 상이집트에서 기독교인에 대한 압력과 차별은 더 심하다. 지역 이슬람 단체들은 기독교인의 거주지를 알고 있으며, 그들이 전도하거나 이슬람을 불경하게 대하지 않도록 감시한다. 최근 몇 년 사이 이슬람을 모욕했다는 의혹이나 무슬림 여성과의 관계 의혹 이후 공격당한 기독교인 사례가 있었다. 농촌 지역에서는 경찰력과 정부 통제가 느슨해 군중 폭력이 처벌 없이 넘어가는 일이 잦다. 국가 차원에서는 보안 및 정보기관이 개종자들을 사찰하고, 개종자 모임의 활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강요한다. 베일을 쓰지 않은 여성들, 기독교 여성들을 포함해, 특히 성희롱에 취약하다.

국가 영역

헌법 제64조는 “신앙의 자유는 절대적”이라고 규정하지만, 이슬람에서 개종한 이들은 보호받지 못한다. 공인된 기독교인들은 신분법과 종교 사무를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나, 무슬림과 비무슬림 간 사건에는 샤리아가 적용된다. 개종자가 종교 등록 변경을 시도할 경우, 당국이 그들을 감시하고 신성모독죄로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 신성모독 의혹 제기나 정부 비판은 체포·고문·투옥으로 이어질 수 있다. 가족 구성원에 의한 개종자 학대는 가정 문제로 분류되어 사실상 불처벌로 이루어질 수 있다.

교회 영역

정부와 사회로부터의 개종 권유 혐의와 그에 따른 공격 또는 “안보상의 이유”라는 명목의 교회 폐쇄를 피하기 위해, 교회들이 개종자를 받아들이는 일은 드물다. 경찰과 정보기관이 교회에서 열리는 모든 행사 일정을 요구하는 일은 흔하며, 국가 안보 보호를 이유로 행사 취소 권한을 갖는다. 사복 경찰이 예배에 참석해 발언 내용을 감시하는 경우도 있다. 교회들은 2016년 교

회 건축법에 따라 건물을 합법화하려 할 때 반대, 심지어 폭력을 겪기도 한다. 다만 법 시행 이후 3,500개가 넘는 교회가 합법화되었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이집트 역사에서 전례 없는 조치로 평가된다. 일부 지역에서는 교회 행사를 외부에서 조심스럽게 개최할 수 있으나, 이슬람에 대한 도전으로 해석될 수 있어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를 주저한다.

국제적 의무 및 권리에 대한 위반

이집트 다음 국제 조약에 따라 기본적인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기로 약속했다:

1.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ICCPR)
2.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ESCR)
3. 고문 및 기타 잔인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에 반대하는 협약 (CAT)
4. 모든 형태의 여성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CEDAW)
5. 아동 권리에 관한 협약 (CRC)

이집트는 다음과 같은 기독교인의 권리를 반복적으로 침해하거나 보호하지 않음으로써 국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 기독교인을 겨냥한 폭력의 가해자들이 처벌을 피하는 일이 흔하다 (ICCPR 제2조)
- 기독교인들은 임의적으로 신성모독 혐의로 고발·기소된다 (ICCPR 제18조, 제19조)
- 기독교로 개종한 이들의 자녀는 자동으로 무슬림으로 등록된다 (ICCPR 제18조, CRC 제14조)
- 기독교인들은 신앙을 이유로 공공 및 민간 고용에서 차별을 겪는다 (ICCPR 제26조)
- 교회는 신축 허가법과 법적 인정을 위한 인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여러 장애에 직면한다 (ICCPR 제21조, 제26조)
- 기독교 여성, 특히 농촌 지역의 여성들은 표적 유인과 강제 결혼의 위험에 노출된다. 무슬림 남성과의 결혼을 강요당하는 사례도 있다 (ICCPR 제23조; CEDAW 제16조, ICESCR 제10조)
-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이유로 테러 조직 구성원에게 살해당한다 (ICCPR 제6조 제1항)

이집트의 다른 종교 소수자들의 상황

이집트에서 불관용과 차별, 박해에 직면한 다른 종교 집단에는 시아파와 수피파 무슬림, 바하이, 몰몬, 여호와의 증인이 포함된다. 시아파 무슬림은 수니파 무장세력의 주요 표적이 되어 공개적으로 예배하고 신앙을 실천하는 일이 위험하다. 몰몬, 바하이, 여호와의 증인은 당국의 인정을 받지 못해 예배 장소를 마련하기가 어렵다. 이들 집단의 선교 열의와 이에 수반되는 활동은 불법으로 간주되며, 신도들은 국가 공무원과 사회, 나아가 기독교인 이집트인들로부터도 적대에 직면한다. 또한 무신론자들 역시 특히 소셜 미디어에서 활동하는 경우 각종 침해에 취약하다.

오픈도어의 이집트 사역

현지 교회들과 여러 협력 사역 단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오픈도어는 북부에서 남부에 이르기까지 전국에 분포한 다양한 사역 센터를 통해 이집트의 모든 교단 교회를 지원하고 있다. 우리는 청소년 사역, 문해 교육, 의료 봉사 등 다양한 장기 프로그램을 통해 여러 연령대를 섬긴다.



- 이 문서의 내용은 매년 오픈 도어 인터내셔널의 연구 부서인 월드 와치 리서치(WWR)에서 발행하는 보다 상세한 WWL 박해 동향 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무료로 사용 및 배포할 수 있지만, 출처를 항상 다음과 같이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2025 Open Doors International.
- 모든 간략한 국가 프로파일은 오픈 도어 인터내셔널 웹사이트의 연구 페이지에서 'Advocacy resources' 하에 접근할 수 있으며, WWL 국가별 박해 동향 보고서, 국가별 배경 정보, WWL 방법론 최신 업데이트도 함께 제공됩니다.
이는 오픈 도어 분석 웹사이트(비밀번호: freedom)에서도 이용 가능합니다.
- WWL 2025 보고 기간은 2023년 10월 1일부터 2024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이 문서의 많은 사진은 설명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